

올해는 승려분한신고의 해

승려복지부담금 제도 첫 시행 신고 기회 놓치면 ‘승적 말소’ 2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조계종 스님이라면 올해 종단 스님으로서 신분을 확인하는 분한(分限) 신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적이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 10년 주기로 치러지는 정기 분한신고인만큼 모든 종도들이 참여해 출가 승려로서 성실히 수행정진하고 있음을 알리고 올해 첫 시행되는 ‘승려복지 본인기부담금’ 제도에도 빠짐없이 동참해 종도로서의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1월2일 불기2564년(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계획을 공

고했다. 승려 분한신고는 조계종 승적을 취직한 후 출가독신으로 정정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정규를 지키고 있는 종단 승려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다. 승려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스님들이 직접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분한신고 기간은 2월3일부터 4월30일까지로, 신고 대상은 조계종 소속 모든 재적승으로 사미·사미니 등을 포함한다. 신고인은 분한신고서, 신상명세서를 비롯해 자필유언장, 신분증, 승려증 등을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 등을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승려복지 본인기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승려복지 본인기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부담금’이란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거,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토록 해 종도 모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제도다. 종단은 분한신고에 근거해 7월1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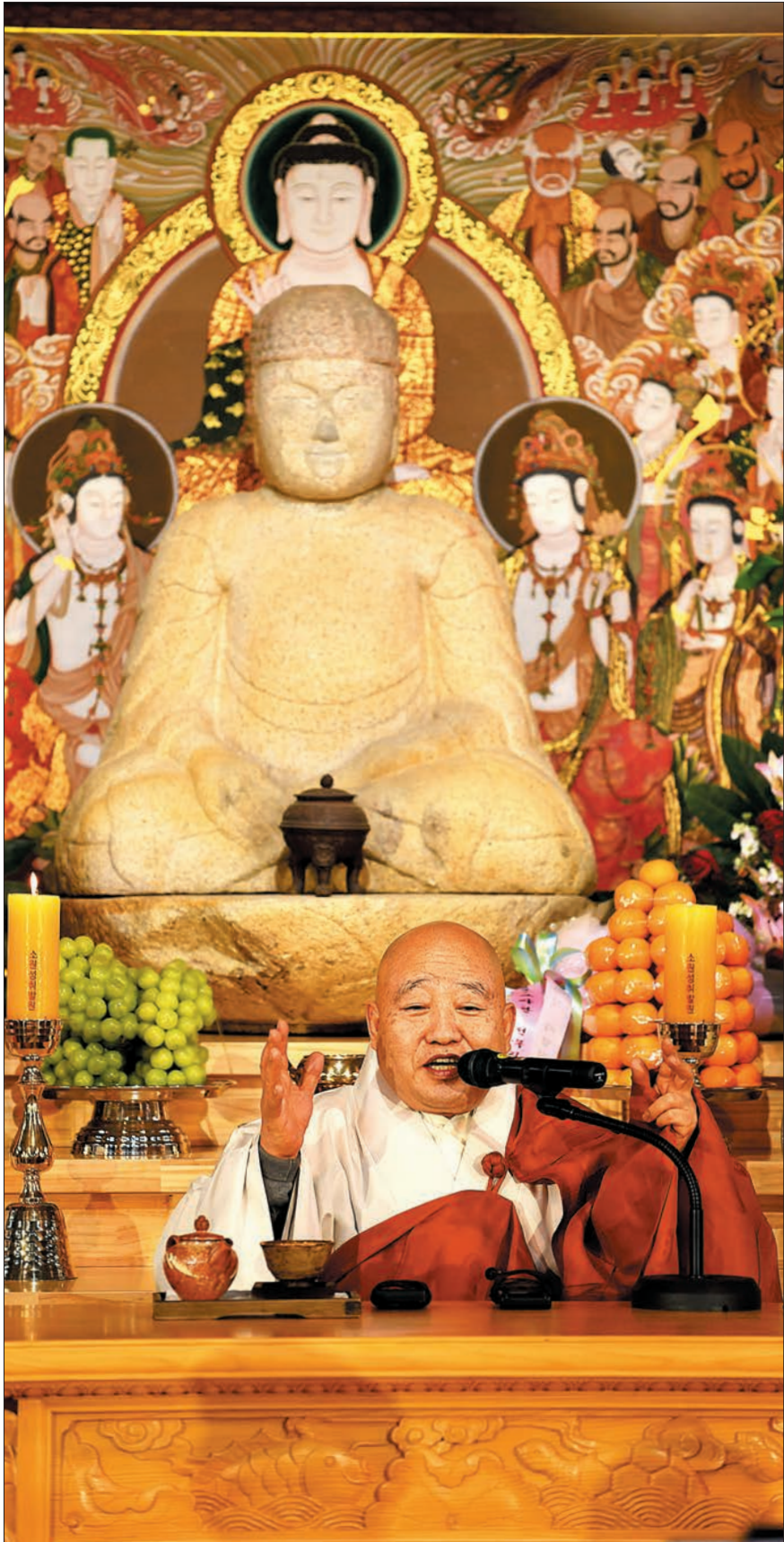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계종 승적은 말소된다. 승려법 제 37조 7항, “총무원장은 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려에 대해 승적을 말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적이 말소된 승려는 종도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며 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훈인 사실이 확인된 때는 직권

제적된다.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에 대한 복적 신청도 가능하다.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됐거나 직권이 제적된 자는 분한신고미필사유서, 사찰거주확인서,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도반 등의 수행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복적 신청을 해야 한다. 교구본사를 거쳐 총무원장 등 7인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적회복 여부가 결정되며 10만원의 접수 비용이 부과된다.

지난 2010년 정기분한신고 때는 1만 4000여 명의 분한신고대상 가운데 1만 1553명이 분한신고서를 접수해 심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그 중 2500여 명은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바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상월선원 새해 첫 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월4일 경자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위례 상월선원 철야정진법회에서 법문했다. 늦은 시간에도 법당을 가득 채운 스님과 불자들에게 총무원장 스님은 상월선원을 비롯해 동안거 결계 중인 2000여 스님들의 뜻을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포교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

하남=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창간60주년...신심 우려나는 토요일 신문

호계원장 무상스님 특별인터뷰 3면 선행스님이 전하는 산사 소식 10면
성도절 ‘승보공양대법회’ 현장 5면 도정스님의 80화엄변상도 해설 11면
문광스님이 쓰는 한국학에세이 9면 증흥사 혜인스님의 ‘맨날천날’ 11면

동안거 특집

천장암 염공선원 정진 현장

경허스님 ‘탈아’ 경지 본받아
올해도 9명 방부...용맹정진

하루 한 끼 2년... 폐관정진
美 국제변호사 출신도 있어

천장암(天藏庵)은 글자 그대로 하늘이 감춘 절이다. 충남 서산시 연암산 자락에 놓였다. 해발 600미터쯤, 비교적 낮은 고도이지만 눈 아래로 보이는 절경 덕분에 훨씬 높아 보인다. 꾸불꾸불한 숲길 깊숙이 박혀있어 하늘이 아주 가깝다. 동안거가 한창인 1월6일 천장암을 찾았다.

눈이 오면 차(車)가 못 가는데 다행히 비가 내렸다. 백제시대인 서기 633년에 창건돼 매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후 내내 묵혀져 있다가, 한국불교의 중흥조라 일컬어지는 경허성우(鏡虛惺牛, 1849~1912)대선사가 주석하면서 비로



경허스님이 천장암에서 기거하던 방. 바깥으로 열반 100주년 기념탑이 보인다.

소 유명세를 탔다. 인근의 공주 동학사에서 화두를 타파한 후 ‘보임(保任, 깨달음을 성숙시키는 과정)’하면서 머물렀던 곳이 이곳이고, 만년에 다시 돌아와 가사(歌詞)문학의 명작인 <참선곡(參禪曲)>을 집필한 곳이 이곳이다. 천장암은 작고 낡은 절이지만 참선수행의 종문(宗門)이라 이를 만하다.

천장암은 경허스님이 마지막으로 떠난 1904년부터 100년 넘게 버려져 있었다. 현재 천장암 회주 웅산스님이 불사의 주역이다. 2012년 경허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고 이듬해에는 염공선원을 지었다. 염공은 ‘念窮’이라고도 쓰고 ‘念弓’이라고도 쓴다. ‘생각을 다하다’로 읽어도 좋고 ‘생각의 활’이라고 읽어도 좋다. 선어록 <무문관(無門關)>은 참으로 길길이 끊어져서 사람분별(思量分別)이 들어설 틈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결국 깨달음이란 생각의 끝에 서만 또는 생각이 다해야만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화살이 바위마져 뚫을 수 있도록, 온힘과 온정심으로 활시위를 당기듯 참선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천장암 한쪽에는 경허스님이 직접 ‘念弓門(염공문)’이라고 적은 현판이 붙어 있다. 스님도 여기서 화살로 바위를 뚫었다. ‘보임’은 깨달음의 철저한 자기화(化)

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경허집>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보임은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벌 누더기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갈아입지 않아 온몸에 빈대와 이가 득실거렸다. 온몸이 얼어버린 지경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티끌만한 욕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몸 위로 구렁이가 지나다녀도 미동조차 없었다. 천장암에는 그 무시무시한 탈아(脫我)의 유적이 남아있다. 경허스님이 기거했던 방은 채 한 평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맨 꼬트머리에 내몰려 있다.

경허스님의 고행을 본받으려고 올해 동안거에도 9명의 수좌가 방부를 들었다. 정진은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된다. 개인적으로 무문관에 도전하는 스님도 있다. 3년을 목표로 했으며 벌써 2년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 스님은 미국 국제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묵언중이어서 말을 붙일 수 없다. 다만, 경허스님과 관련된 책은 모조리 읽고 발심해 40대 초반에 다 버리고 출가했다고, 주지 스님이 알려줬다. 그 스님은 생각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대개는 대중 생각하거나, 생각에 아파만 하다가 끝나버린다.

서산=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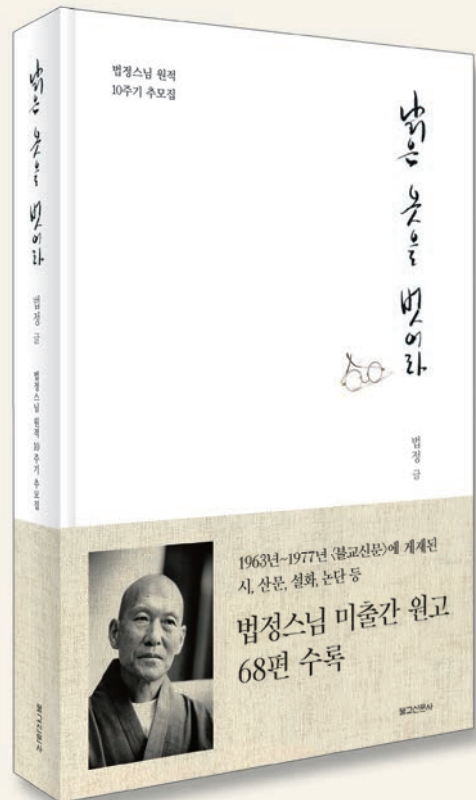
낡은 옷을 벗어라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스님이 1960~1970년대 불교신문에 게재한 미 출간 원고 68편을 엮은

법정스님 원적 10주기 추모집



불교신문사 (02)733-1604 | ytd25@hanmail.net



글 : 법정스님

국판변형 / 양장제본 / 312쪽 / 값 16,500원